



(주)헵시바멀티미디어 & 한국영상대학교 공동기획

# Outline 스피커 시스템 및 디지털 콘솔 시연회

by 이보원 photo by 이선우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2월 23일 화요일, 겨울의 끝자락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야외인 탓에 몸이 움츠러드는 냉기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에 저마다 기대감과 궁금함이 묻어나는 것을 보니 '이런 행사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케줄을 미루면서까지 '한국영상대학교 야외 공연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 목마름

(주)헵시바멀티미디어(이하 헵시바)와 한국영상대학교가 함께 만든 이번 행사의 내용은 다름 아닌 '디지털 믹싱 콘솔의 비교 시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전시회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뜻 깊은 행사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준비된 행사는 스피커의 브랜드를 정해 놓고 모두가 같은 음원을 플레이한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믹싱콘솔을 바꿔가며 각 제품의 성향과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엔지니어라면 분명히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한국영상대학교의 정문 바로 옆에 자리한 야외 공연장은 시연회를 개최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무대에는 언제든지 스피커를 리깅할 수 있는 트러스가 호이스트와 함께 상시 설치되어 있고 경사를 가진 객석과 그 뒤로 잔디마당이 넓게 펼쳐져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마음껏 돌아다니며 청취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건물까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물론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점이 인근에 자리했지만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한 날은 행사 당일로 무대에는 16대의 GTO L-12가 리깅되어 있었고 무대 전면에 2개씩 짝지어진 서브우퍼 6세트가 스택되어 있었다.



헵시바에서 시연회를 기획한 만큼 사용된 스피커는 지난 KOSOUND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GTO C-120이다.



시연회 시작시간  
까지 2시간 이상이  
남았는데도 공급증  
을 받지 못한 사람  
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혹시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직  
결되기에 촉각을  
끈두세운 진향음향  
의 이근호 대표.

행사를 위해 열일을 제쳐두고 현장을 진두지휘한 진향음향의 이근호 대표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저희 같아도 보유하고 있는 콘솔을 테스트 해본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여러 브랜드의 콘솔을 직접 놓고 비교해본 적은 없기에 더욱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오성환 대표와 협의를 마치고 스텐바이 하고 있다가 어제 아침 이곳에 짐을 풀었습니다”라며 함께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브 우퍼의 배치 형식에 대하여 질문하자 “처음에는 중앙에 모아 놓고 무지향 특성으로 셋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 인근에 여러 건물과 상업시설이 있어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카디오이드 패턴을 구현한 것이지요. 메인 스피커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객석을 맞고 되돌아오기는 하지만 서브우퍼의 에너지는 방향성을 갖게 되므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스피커가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여러 브랜드의 디지털 믹싱 콘솔이 하나 둘 셋업을 시작하였다.

행사 전날 도착한 (주)사운드 솔루션은 MIDAS PRO X를 선보였고 그 외의 브랜드들이 속속 도착하여 시연회 준비로 분주했다. 가장 좌측은 (주)한서비엠텐터의 SSL LIVE300이 자리했고, 그 다음으로 MIDAS PRO X, 삼아프로사운드(주)의 ALLEN&HEATH dLIVE가 마지막으로 (주)고일의 AVID S6L이 등지를 들었다.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1kHz가 각 콘솔로 보내지고 저마다 입력된 신호가 0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모든 준비를 마쳤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곳의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본인이 직접 듣고자'하는 업계의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14시부터 시작인 것이 사전에 공지되었음에도 오전 10시부터 이곳을 찾은 이들이 많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은 이미 취재진이 도착해서 확인했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각 브랜드의 디지털 콘솔이 한자리에 모였다. 마치 서로 자신의 스피커에 대하여 논의하는 듯 하다.

“ ”

SSL LIVE L300, MIDAS PRO X, ALLEN&HEATH dLIVE, AVID S6L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연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14:00

약속된 시간이 되자 험시바 오성환 대표의 인사말이 시작됐고, 잠시 후 SSL LIVE 300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시연회는 막이 올랐다. 그동안 많은 장비를 다뤄본 사람들이지만 SSL의 LIVE 버전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지는 MIDAS PRO X는 여러 렌탈 컴퍼니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스피커에서 재생된 사운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느꼈다. 얼마 전 국내에 출시한 ALLEN&HEATH dLIVE의 차례가 되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존의 제품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주었고, SC48과 PROFILE 유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AVID S6L은 그동안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듯 한껏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소중한 시간

14시부터 시작된 시연회는 각 브랜드들에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곡당 할당된 시간이 조금은 길게 느껴질 정도였으니 곡에 대한 특징과 브랜드에 따른 차이점을 인지하고 확인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중간 중간에 배치된 브레이크 타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마다의 기준에서 순위를 매겨 보기도 하고 제품별 장·단점을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등 주최 측에서 준비한 다과와 따스한 차를 마시며 열띤 토의를 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이기가 했다.



공연장 한쪽에 OUTLINE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리깅 톨을 비롯하여 각각의 제품을 직접 만져 볼 수 있도록 했다.



중요에 자리한 진함음향의 자리에 사람들이 운집했다. 좌우의 스피커에서 재생된 사운드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싶었던 것일까.

모니터 스피커의 시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 사운드를 들어보며 제품의 특징을 직접 경험했다.



오성환 대표는 “더 많이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이야기 했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많은 이들이 화답하는 모습은 뭐랄까 웬지 마음이 따스해지는 느낌이랄까? 적어도 이곳에 온 사람들은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음엔 틀림없다.

사람마다 사운드 기준이 다르듯 각각의 제품 평가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형식의 진행이었다는 점과 하나의 플레이어에서 재생된 음원을 스플리트해 각 콘솔에 입력하고, 자신의 순서에 따라 콘솔 아웃을 앰프로 송출하였기에 ‘믹싱 콘솔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통규격’을 이룬 셈이다. 게다가 수차례 진행된 시연회에서 한번은 레벨 규정을 두고 진행했고 또 한번은 마음껏 내질러 보는 등 엔지니어라면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졌기에 이곳을 찾은 이들은 소위 ‘득템’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삼아프로사운드(주)



(주)한서비엠티

이들간 자리를 지킨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제작과 김용 교수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언제 이런 것을 경험해 보겠어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린 헝시바 대표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흔쾌히 이 자리에 콘솔을 들고 와 주신 각 업체 관계자 분들에게도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시연회가 끝나자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고, 헝시바와 진

향음향의 임직원들도 각자의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 부지런히 철수를 진행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에이 그것이 되겠어?’ 그러나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되게 했으며, ‘그것 분명히 제품 홍보야, 당연한 것 아냐?’ 하지만 ‘이런 콘텐츠라면 제품 홍보 좀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다. 야외 공연장을 찾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곳을 찾은 이들은 분명 웃으며 이 자리를 떠났으리라. 새로운 시도를 위해 애쓴 (주)헝시바 멀티미디어와 진향음향 그리고 너무나 잘 갖춰진 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국영상대학교 음향제작과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



(주)고일



(주)사운드슬루션



(주)헝시바멀티미디어와 진향음향의 임직원들이 모든 일정을 마친 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